

# 영화 '알라딘', '겨울왕국' 제쳤다

## 인터스텔라까지 누르고 역대 외화 흥행 5위

### 5월23일 개봉 이후 무서운 흥행 뒷심 발휘

영화 '알라딘' (감독 가이 리치)이 역대 외화 흥행 5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알라딘'은 16일 8만 4168명을 모으며 누적 관객 1032만 5838명을 찍었다.

'인터스텔라'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2014 · 누적 관객 1030만 9432명), '겨울왕국' (감독 감독 크리스 벅 · 제니퍼 리, 2014 · 누적 관객 1029만 6010명)을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5위 자리를 꿰찼다.

1392만 7492명이 본 '어벤져스: 엔드 게임' (감독 엔터니 · 조루소, 2019)이 역

대 외화 흥행 1위다. 이어 '아바타' (감독 제임스 캐머런 · 2009 · 누적 관객 1333만 8863명),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감독 앤서니 루소 · 조루소, 2018 · 누적 관객 1121만 2710명),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감독 조스 웨던 · 2015 · 누적 관객 1049만 840명) 순이다.

5월23일 개봉한 이 영화는 무서운 흥행 뒷심을 발휘하며 개봉 53일 만에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좁도록에 지나지 않던 '알라딘' (메나 마수드)이 우연히 랭프의 요정 '지니' (윌 스미스)를 만나게 되면서 환상적인 모험을 한다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다. 윌 스미스(51), 메나 마수드(28), 나오미 스콧(27) 등이 출연했다.

### 리뷰

## 우리편도, 일본편도 아닌 새로운 시선

### 영화 '주전장'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관한 한, 일간의 깊은 갈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 다큐멘터리다. '주전장(主戰場)'의 감독인 일본계 미국인 마키 데자키는 자신의 뿌리라고 해서 일본에 치우치지도, 그렇다고 한국을 대변하지도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27명을 인터뷰, 주장-재반박 형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가며 보여준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인터뷰에 응했을 뿐인데, 관객은 서로 토론하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이미 지난 4월 개봉했다. 역사교육 부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일본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이 영화를 보고 서로에게 추천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규모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3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영화를 본 현지 관객들은 '현재의 일본을 담아낸 중요한 영화', '극우세력을 향한 강력한 경고', '역사를 속이고 있는 정권에 새로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일본 극우세력은 데자키 감독에게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에 나오는 일본 극우세력 3인은 5월30일 도쿄에서 상영 중지 기자회견을 개최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 '편집이 중립적이지 않고 발언이 잘려 공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데자키 감독은 "영화의 상영 가능성은 출연자들에게 인식이었고 영



화 공개 승낙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물론 극으로서 볼 때는 기승전결없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에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다루려는 태도, 위안부 피해자들을 수차례의 인터뷰를 했던 이전의 한국 분위기에 대한 비판, 아베 정권의 실제, 위안부 이슈를 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의 제시하며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영화는 최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사안을 다뤘지만, 데자키 감독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모습으로 장식된다. 영화의 시작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바로 다음날, 외교부 관계자에게 당사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협상을 맺었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질타 섞인 울부짖음이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모델로 2007년 미국의 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영상이 등장한다. 위안부 당시를 회상하면서 "스물두살이 제일 많은 나이였다. 군인들이 달려들면 당하면서도 일어나...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라며 미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1991년 8월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다. 그녀의 증언 이후 국내 할머니들은 물론 필리핀,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세계 위안부의 날'은 그 첫 증언을 기리고자 8월14일로 지정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깊은 지점은 마키 데자키 감독이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젠가 그분들과 정의가 구현되는 '희망'을 뜻한다. 또한 인종 차별, 성차별, 패시즘과 맞서 싸우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 BTS,美 타임 '온라인 영향력 있는 25인' 선정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타임(TIME)의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에 선정됐다. BTS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뽑혔다.

16일(현지시간) 타임은 "한국의 슈퍼 그룹 BTS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수백만의 강력한 팬 집단 아미(ARMY) 덕분에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다"라고 소개했다.

또 "아미는 BTS를 2년 연속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 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멤버들을 더욱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BTS의 그간 기록을 소개했다. BTS의 '맵 오브 더 soul : PERSONA'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동안 시청 수가 7500만에 달했다.

BTS 외에 유명 정치인, 팝스타들도 포함됐다.

매일 트위터로 세계 언론사가 기사를 쏟아내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인지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인기 TV쇼 '새 테이 나이트 라이브'(SNL)가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 연방정부 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 총 29건의 트윗을 게시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며 진보 정치인의 선택으로 떠오른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이름 이외에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신에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 유명 메이크업 유튜버 제인스 찰스, 올해 아들을 얻은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미국 래퍼 카디 비(Cardi B) 등이 선정됐다.

###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 ▶ 쥐띠 상사를 무시하면 자신도 존경받지 못한다. 자만심은 금물이나 겸손한 태도로 자기 일에 충실함이 좋을 듯. 4, 5, 8성세가 유혹해 온다. 오늘부터 서서히 행운이 들어온다.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주택도 얻고 사업도 번창.
- 소** ▶ 소띠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결실이 없다. 이권에 너무 집착하던 다름이 우려된다. 구설 조심하고 서북쪽 3, 4, 5성세가 조연을 기다리니 문안 인사라도 하라. 투자는 말쑥 해도 좋을 듯. 4, 5, 6월생 밝은색으로 단장.
- 호랑이** ▶ 호랑이 ▶ 범띠 중개업자는 일처리할 때 재치가 필요하다.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부가 따를 듯. 부모나 가족의 건강에 주의해야 할 날이다. 제조업체는 승산이 커진. 불타던 애정은 어디 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 가는구나. 만취는 가정의 화목을 갠다.
- 토끼** ▶ 토끼띠 직장인은 칭찬 받는 날이다. 인기인은 명성을 떨치는 좋은 날이다. 자기 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을 듯. 경쟁력과 붉은색 입은 사람 큰 행운이 있다. 참모진의 마음을 읽어야 할 날. 남의 것에 정 주지 말 것. 이혼수 있다. 10, 11월생 푸른색 피할 것.
- 용** ▶ 용띠 무엇에서는 진지한 태도가 요구됨. 생각지도 않던 수입도 있을 수. 애정은 순직한 표현으로 대하면 핑크빛이 된다. 가시적인 행동은 오후에 들뜬다. 1, 6, 9월생 투기에 성공하는 날. 뱀에게 물린 것 돼지띠에게서 도움 받을 수.
- 뱀** ▶ 뱀띠 뜻한 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귀인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것마다 손조롭다. 기분이 새로워지나 자만에 빠지면 오후에 몰상이 된다. 4, 10, 12월생 더욱 조심할 것. 시랑 새우, 예상. 마색과 노란색은 마음을 외롭게 하니 피할 것.
- 말** ▶ 말띠 두둑한 배짱이 필요할 때. 박력있게 밀고 나감이 좋겠다. 한없이 미루다가 천정배필도 놓칠까 염려된다. 동업하는 사업지도 용기를 가져라. 3, 5, 9월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 1, 3, 9월생 부담도 되지 않음 도둑도 크다.
- 양** ▶ 양띠 자신이 처한 위치를 잘 판단하라. 예외주시할 다음 일을 저지름이 좋을 듯. 괜한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운세이니 주변 구설을 조심하라. 2, 7, 11월생 잡아라. 능력 있는 자이다. 노부모가 있다면 먼 여행길은 삼감이 좋을 듯하다.
- 원숭이** ▶ 원숭이띠 지나치게 인정에 끌리어 자기 사업을 망칠 우려 있다. 타인의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다. 아무런 소득도 없고 피로만 쌓일 뿐이다. 4, 5, 11월생 애정의 갈등이 심할 듯. 안전한 행동과 겸손한 처세여야 모든 일에 좋을 듯.
- 닭** ▶ 닭띠 어려운 일은 해결됐으나 송사나 구설이 따른다. 보충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부부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더욱 정이 들고 애정도 다시 싹을 틔운다. 단 6, 9, 12월생 진실이 필요. 짝사랑은 아니다. 상대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 개** ▶ 개띠 직장에서 중책을 맡아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을 받는다. 사업상 어려움은 친구나 친지의 조언을 받으면 순조롭게 풀릴 듯. 남녀 간에 이익을 위해 사투리가 많을 수 있게 된다. 남에게 의지하려다 퇴보하는 격. 자신의 노력만이 성공을 부른다.
- 돼지** ▶ 돼지띠 벽치고 힘이 들지만 꾸준한 도전과 노력으로 씨를 뿌리면 성취될 수 있다. 애정은 배물면서 포용력으로 참고 견디면 좋은 일 있겠다. 가화만사상이니 2, 8, 12월생 하나만 선택하라. 정장이 행운을 주는 날. 못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겠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